

베트남에서 펼친 사랑의 인술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받은 베트남 환아를 진료하는 우석정 원장.

“5분만 빨리 왔으면 살았을 텐데...” 라오스 해외 의료봉사
에서 우석정 원장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틀 연
속으로 두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와서 한 아이는 살았지만 한
아이는 결국 숨졌다. 우석정 원장은 흉부외과와 응급의학 전
문의 자격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
본적인 심폐소생술밖에 없었다. 단 5분으로 엇갈린 두 아이의
생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우
석정 원장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무의촌 의료봉사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신뢰를 얻다

우석정 원장은 해외 의료봉사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추가로 취득하고, 40세가 되던 2001년 가족과 함께 베
트남으로 향했다. 그리고 베트남 남부의 호찌민을 중심으로
소외지역에서 이동진료를 시작했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지방
출입을 통제하고 의료봉사활동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심지어 진료받을 환자도 정부가 정해준 탓에 의료봉사에 한계
를 느꼈다. 그래도 우석정 원장은 한 달에 2~3회씩 5년간 봉사
활동을 이어 나가며 현지 의료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거점이 되는 병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해 외국인 투자 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호찌민에서 50km 떨어진 룡안성의 땅을 50년간 장기 임차하
는 방식으로 부지를 마련했고, 2006년 10월 35개 병상과 수술
실, 응급실, 분만실을 갖춘 룡안 세계로병원을 개원했다.

전쟁의 상흔을 보듬다

병원 인근은 도로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시골마을이었다. 우석정 원장은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도로를 만들고, 가로등과 하수처리 시스템도 설치했다.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임에도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석정 원장은 지역 주민을 치료하는 데 전념했다. 현지 공공 병원 수준의 진료비를 책정하고 저소득층은 무료로 진료하는 한편 응급실과 분만실을 24시간 운영했다. 선천성 심장병 환자 352명과 구순구개열·화상환자 342명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마을 체육대회와 봉사활동도 펼쳤다.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은 룡안 세계로병원의 활동에 점차 마음을 열고 ‘한국병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우석정 원장은 개원 초기부터 고엽제 환자에 주목했다. 50여 년 전 살포된 고엽제가 4대째 유전질환을 일으켜 지금도 선천적으로 손발의 관절이 뒤틀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우석정 원장은 2014년 고엽제센터를 개소해 고엽제로 인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80여 명의 장애아동이 관절 교정수술을 받았고 2천여 명의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았다. “신경을 자극하는 시술이나 관절 고정 수술을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만 해줘도 삶이 완전히 달라 집니다. 가능성 있는 아이들에게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게 하



코로나19 당시 현지인들을 진료하는 룡안 세계로병원 의료진.



우석정 원장(가운데)과 룡안 세계로병원 의료진.

고, 성장이 된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직업훈련을 받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항상 베트남 환자들의 곁을 지키다

베트남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노력은 코로나19에 더욱 빛을 발했다. 거의 8개월간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이 140명의 환자를 관리하며 병원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가끔 ‘외국 투자병원이 시골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다’며 반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나니 그런 반감은 거의 없어지고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석정 원장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전문 인력 위주로 의료진을 채용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2년간 베트남 주민을 위해 헌신한 한국인 의사, 우석정 원장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안(Ahn, 형)’ ‘엠(Em, 동생)’이라 부르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한 환자의 곁에서 함께하는 의사로 남고 싶다”는 그는 여전히 베트남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글 편집부